

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모 연 2만호 확대

-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로 13일부터 공모...

기금융자 한도 확대 · 공사비 증액 기준 현실화 등 사업 여건도 개선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와 주택도시보증공사(사장 유병태)는 「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」(’23.9.26., 관계부처 합동)의 후속조치로, ’23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 시행한다.
 - 이에 따라 상반기 1차 공모(5천호)에 이어 10월 13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2차 공모는 당초 5천호에서 1만 5천호로 확대하여 모집한다.
-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 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(리츠)가 민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,
 - 기존에 계획된 임대주택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사업 여건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모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.
-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용자 한도를 한시적으로 호당 2천만원씩 확대*하고, 공사비 증액 기준을 현실화** 하는 등 사업여건을 개선한다.
 - * (용자한도) 당초 호당 0.7~1.2억원 → 개선 호당 0.9~1.4억원(’24.6월 공모접수 건까지)
 - ** (증액기준) 당초 공사비 연 5% 초과분의 50% → 개선 연 3% 초과분의 100%(최소 수익률 내)
- 또한, 공모~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소요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여 올해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.

- 자세한 사항은 10월 13일(금)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(www.khug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10월 16일(월)부터 10월 20일(금) 17:00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할 수 있다.
-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거복지정책관은 “이번 민간제안 사업 공모 확대 및 기금융자 확대 등 사업여건 개선을 통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적시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계흥 (044-201-4100)
		담당자	주무관	양희진 (044-201-4104)
<공동>	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심사처	책임자	처 장	오세진 (051-998-2300)
		담당자	팀 장	박영훈 (051-998-2301)

